

모험과 제국: 오시카와 순로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조 경 숙**

本稿は押川春浪の《海底軍艦シリーズ》を通じて冒険がどのように帝国的に変容されているか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帝国と冒険とのあいまいな冒険小説という芸術的価値にだけその意味を与えられない。神秘、憧憬、恐怖などの未知世界を探検し冒険的な行動と好奇心を刺激する興味本位の新しいその未知世界が帝国の欲望に変容されていくからである。特に1900年を前後とした日本冒険小説に大きな影響力をあたえた押川春浪と彼の冒険探検小説がその一例であろう。『海底軍艦』(1900)を初めとする『英雄武侠の日本』(文武堂,1902)『海国冒険奇談新造軍艦』(文武堂, 1904)『戦時英雄小説武侠艦隊』(文武堂, 1904)『英雄小説新日本島』(文武堂, 1906)『英雄小説東洋武侠団』(文武堂, 1907)などがいわゆる《海底軍艦シリーズ》である。ところで、押川春浪の冒険小説は後代のSF作家等に至大な影響を与えただけではなく大正期の天才的作家芥川竜之介にもそうである。当時青少年であった芥川竜之介は押川春浪冒険小説の読者であり模倣者でもある。従って、本稿ではその点に着目して冒険と帝国がどのように変容されていくかを二の作家の作品と文章を通して考察してみた。

キーワード：冒険、帝国、押川春浪、海底軍艦シリーズ、芥川竜之介
(모험, 제국, 오시카와 순로, 해저군함시리즈,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1. 들어가며

본고는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 《해저군함 시리즈》¹⁾를 통해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58-A00044)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의 교수

1) 오시카와 순로는 본명이 마사아리(方存)로 도쿄전문대학(현 와세다대학)영문과에 진학해 재학 중에 『해저군함(海底軍艦)』(1900)을 완성한다. 그 이후 『영웅무협의 일본(英雄武侠の日本)』(文武堂, 1902) 『해국모험기담 신조군함(海国冒険奇

모험소설이 어떻게 제국 적으로 변용되어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제국과 모험의 만남은 더 이상 모험소설이라는 예술적 가치에만 무게를 둘 수 없다. 신비, 동경, 공포 등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모험적인 행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본위가 제국의 욕망에 의해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제국주의의 <세계>로 되어가기 때문이다. 모험을 바탕으로 한 흥미본위의 모험소설은 19세기에 아동문학 분야로 새롭게 등장했다. 물론 모험이라는 소재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독자들에게 모험적인 행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과 갈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부분은 미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경이와 신비, 동경과 공포 등의 새로운 미지세계를 경험하며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상상의 세계를 통해 낭만적 경험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주인공의 사상성이나 심리보다 행동에 치중한 모험소설의 유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Homeros)의 서사시 『오디세이(Odyssey)』를 비롯하여 동서양에 수많은 작품²⁾들이 남아 여전히 그 생명을 발하고 있다. 일본 근대역시 또한 그러한 영향 아래서 많은 작품들이 나왔다. 물론 일본 신화에서 보이는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모험담 등과 같은 모험류가 있지만 근대적인 모험소설은 메이지기의 구로이와 루카(黒岩涙香)의 서구탐험소설의 번역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위주의 모험탐험 소설이 일본근대의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서서히 해양을 위주로 한 해양소설 또

談新造軍艦』(文武堂、1904) 『진시영웅소설 무협함대(戰時英雄小説武俠艦隊)』(文武堂、1904) 『영웅소설 신일본도(英雄小説新日本島)』(文武堂、1906) 『영웅소설 동양무협단(英雄小説東洋武俠團)』(文武堂、1907) 등 소위 <<해저군함시리즈>>가 탄생한다. 오시카와 순로의 친척인 사쿠라이 오무라(櫻井鷗村)가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에게 원고를 보여주자 이와야 사자나미는 격찬한다. 그의 아호 사자나미(小波)중에 나미(波)를 따서 오시카와 순로에게 주기도 했는데 오시카와 순로는 波를 浪으로 바꾸어 순로(春浪)라 한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인해 오시카와 순로는 1903년부터 아동잡지 『소년세계(少年世界)』에도 투고하기 시작한다.

2) 근세의 D.디포(Defoe)의 『로빈슨 크루소우』 J.스위프트(Swift)의 『걸리버 여행기』 R.스티븐슨(Stevenson)의 『보물섬』, M.트웨인(Twain)의 『툼 소녀의 모험』 『허클베리 핀』 등이 있고 동양에서는 최고의 고전인 『서유기』 『수호전』 등을 위시한 많은 작품들이 있다.

는 남양소설이라는 형태의 <일본적 변용>³⁾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속에는 제국주의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청일전쟁의 승리에 따른 국운의 발전과 함께 일본의 모험소설은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기류 속에서 출현한 오시카와 순로는 자연주의 신변소설에 반발⁴⁾하며 1900년에 『해저군함』을 발표하여 청소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모험소설의 영웅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특히 오시카와 순로의 소위 《해저군함 시리즈》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지대한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역사소설가인 오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나 SF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도가와 란보(江戸川乱歩)들에게도 영향⁵⁾을 주었듯이 그 여파가 상당했다. 그 뿐만 아니라 오시카와 순로에게 영향을 받은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당시 청소년기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가 있다.

다이쇼(大正)기의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초현실주의자며 기교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15년부터 1926년까지 10여 년의 짧은 작가 생활 중 백 수십여 편의 단편소설을 남기 기량을 보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청소년기에 쓴 다수의 초기문장⁶⁾이 오

3) 윤상인은 <해양모험 소설의 사회 계몽적 효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단순한 원작의 번역 차원을 넘어 급기야는 원작으로 환골탈태한 일본판 해양모험소설> 즉 <남양소설> 또는 <해외웅비소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는 일본적 변용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윤상인(2005) 『메이지 시대 일본의 해양 모험소설의 수용과 변용 - <야만적 타자>의 발견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비교문학』 25, 한국비교문학회, pp.261-282.

4) 福田宏子(1968) 『明治の帝国主義と冒険小説 - 押川春浪の小説の意義 -』 『季千文学・語学』 (49)、三省堂、p.90

5) 이토 히데오는 오시카와 순로의 영향에 대한 일례로 여러 명의 소설가를 들고 있는데, 소설가 오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는 10살 때 <쿠카(涙香)의 번역물이나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책 등을 섭렵>했다고 하고, 일본추리소설가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에가와 란보(江戸川乱歩)은 <당시의 소년은 사자나미의 옛날이야기부터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을 애독>했다고 한다. 또 야나기다 이즈미도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세계와 무협세계>의 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일례로 들며 모험소설에 대해 논하고 있다. 伊藤秀雄(2002) 『明治の探偵小説』 双葉社、pp.362-363.

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청소년기 즉, 작가가 되기 이전에 쓴 문장들을 일컬어 초기문장이라고 한다. 이와나미(岩波)서점에서 출간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전집21권에 수록되어 있는 초기문장은 『노구치신조에게(野口真造君硯北)』(초등학생 즈

시카와 순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시카와 순로의 연구자인 요코다 준니(横田順弥)는 그 초기문장들에 대해 <아쿠타가와 순로(?)>라고 언급⁷⁾하듯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오시카와 순로의 작품에 얼마나 경도되어 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 한 것이다. 이 <오시카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⁸⁾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오시카와적>인 것을 포함하여 그 이후 즉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문학 작가가 된 이후에는 그렇다면 오시카와 순로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험과 제국의 관계는 모험과 제국간의 원론적인 텍스트론적인 접근시도보다는 오시카와 순로의 《해저군함 시리즈》가 일본제국주의의 시대적 상황을 모험이라는 작품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또 당시의 열혈독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그러한 오시카와 순로의 작품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 연계 고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해저군함』 소년 히데오를 둘러싼 인물들

오시카와 순로의 『해저군함』이 1900년에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은 『해저군함』에 열광하며 심지어는 주인공을 모방하여 가출⁹⁾하기도

음을 비롯해 『신짱에게(真ちゃん江)』(초등학생 즈음) 『대해적(大海賊)』(1902.4. 추정) 『모험소설 불가사의(不思議)』(1902.5 추정), 『신 콜럼버스(新コロンブス)』(1906.6) 『절도의 괴사(絶島の怪事)』(1906.5) 『20년 후의 전쟁(廿年後之戦争)』(1906) 『무사도(武士道)』(1908) 『요시나카론(義中論)』(1910) 『닛코소품(日光小品)』(1911) 등이 있다.

7) 横田順弥(1999) 「明治時代は謎だらけ!! 芥川春浪(?)」 『日本古書通信』 日本古書通信社、p.22.

8) 曹慶淑(2005) 「日露戦争と芥川竜之介の政治意識-「少年世界」を中心として-」 『声・映像・ジャーナリズム-メディアの中の戦争と文学』、フェリス学院大学、pp.152-168. 조경숙(200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오시카와순로 - 충군애국을 축으로 해서」 『일어일문학연구』58-2, 한국일어일문학회, pp.163-176.

9) 그 일례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중국강남을 여행하며 쓴 『강남유기』에 친구 무라다(村田)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보면, 친구 무라다가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을 흉내 내어 가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芥川龍之介(1997) 『芥川龍之介全』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시카와 순로는 자연주의 경향이 있던 당시의 문단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난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민을 타락시키고 청소년을 오도시켜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모험탐험소설에서도 당연히 일본제국주의의 군국주의 국가주의에 대해 대항적인 <개인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청일전쟁에 승리했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이라는 서구세력으로 인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해야 하는, 그들의 야욕이 일시 좌절되는 경험을 하며 공격으로 러시아가 부상하며 러일전쟁으로 이어졌다. 오시카와 순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그 문제와 해답을 『해저군함』과 뒤이어 이어지는 《해저군함시리즈》, 즉 모험이라는 소설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소년으로 등장하는 <히데오>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인물을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해저군함』을 포함한 《해저군함시리즈》의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모험탐험가인 <나>야나기가와 류타로(柳川龍太郎)는 요코하마를 출항해 세계를 두루 여행할 목적으로 아메리카로 건너 가 다시 유럽, 즉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명성 있는 명소 유적을 편력하고 이탈리아에서 귀국길에 오른다. 그 때 우연히 만난 일본 동향의 친구가 자신의 아들인 히데오(日出雄)를 일본 제국 군인으로 키우기 위해 본국 일본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동승한다. 귀국선 겐게쓰마루(弦月丸)가 해적선에 침몰 되고 <나>는 히데오와 우연히 무인도에 표류된다. 그런데 그 섬에는 이미 일본에서 자신의 부하 37명과 종적을 감추었다고 소문이 난 사쿠라기(桜木) 대령 일행이 비밀조선소를 만들어 해저전투정인 해저군함을 건조하고 있었다. <나>와 히데오는 그들과 합류해서 3년을 그 무인도, 후에는 아사히섬(朝日島)으로 명명된 그 섬에서 생활한다. 한편 프랑스에서 새롭게 건조한 <우네비>가 회항 중에 러시아 해군에 공격을 받아 표류하다 지나해에 있는 거인도(巨人島)에 표류한다. 거인도에 좌초한 아리 아키라(有明)

대위 등은 그 섬에서 군함의 건조를 계획한다. 또한 러시아는 내기에 진 원한으로 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선장 이나무라 이와타로(稲村巖太郎)배를 침몰시켜 동해안으로 표류시켰다. 거기서 이나무라 이와타로는 해광국(海光国)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그 나라의 왕이 되어 혹시 본국인 일본에 큰 변이 생긴다면 곧 출동할 태세를 갖춘다. 그런데 사이난(西南)전쟁¹⁰에서 죽었을 터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생존해 필리핀의 아귀날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음지에서 도와주다가 그 독립운동이 실패하고 어떤 계약에 말려 사이고 다카모리가 미국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러시아에 인도되어 시베리아의 괴담에 유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쿠라기대령을 위시한 멤버들로 구성된 <무협단체>와 이나무라 이와타로 등으로 경성된 <동양단체>가 사이고 다카모리를 구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필리핀의 아귀날도장군의 동지인 호세 아가씨가 러시아인 키바노프 중위의 저택에 하녀로 들어가 사이고 다카모리가 갇혀있는 곳의 지도를 찾아낸다. 그리고 사자를 데리고 다니는 만용 무장한 단바라 겐도지(段原劍東次)의 대활약이 있고 때마침 나타난 공중 비행정의 출동으로 사이고 다카모리를 구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먼저 히데오가 어떤 소년상으로 나오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히데오는 일본인이지만 이탈리아에서 상업을 하는 부모에게 태어나 모국일본에 대한 것은 부모한테 들은 것이 전부다. 8살의 히데오는 그의 부모처럼 순종적이며 전형적인 전근대적인 인물이다. 일본국가에 충성하는 일본 제국 군인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히데오는 <나>와 같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중에 배가 난파되어 구사일생해 사쿠라기 대령이 해저군함을 건조 중인 무인도에서 삼년을 보낸다. 히데오는 8살의 소년으로 『해저군

10)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일으킨 반란이다. 정한론에 패배해 귀향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족(士族) 조직으로서 사학교를 결성했다. 정부와의 대립이 점차로 깊어지고 마침내 사학교 학생들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옹호해서 거병하지만 정부군에 진압되며 사이고 다카모리는 고향의 시로야마(城山)서 자결했다고 한다. 유신정부에 대한 불평사족들의 최후의 반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함』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소년이다. 히데오는 그를 둘러싼 어른들은 <순진무구> <사랑스러운> 이 소년을 일본제국주의에 걸 맞는 <애국소년>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 인물 중 첫 번째가 일본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아버지 모습으로 등장하는 히데오의 아버지 하마지마 다케부미(浜島武文)이다. 그는 이태리에서 상업적으로 대 성공을 하였지만 자신의 하나 뿐인 아들은 멀리 본국일본에 보내서 일본 제국 군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이유는 <내 평소 희망은 나는 이렇게 해외에서 일개상인으로 출세해서 살고 있지만 아이만큼은 꼭 일본제국을 지키는 멋진 해군군인으로 만들고 싶다. 일본인으로 태어난 아이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애국심이 사라지는 것을 내 스스로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¹¹⁾이라고 한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희망, 즉 일본제국의 해군군인이 되는 것이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희망은 아들이 원하는, 아들이 원하는 아들의 미래상이 아닌 아버지가 바라는 일방적인 희망이다. 물론 8살의 소년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신의 미래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는 현시대에도 의문이지만 적어도 소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말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러한 <말>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일본에 보내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생활하면 애국심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태어난 이상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일본 군인으로 말이다. 여기서 보이는 아버지의 논리는 <애국심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왜 굳이 일본 군인이어야 한다는 가는 『해저군함』의 내외부에 흐르는 일본제국주의의 욕망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는 자식을 제국주의 군인으로 양성해 애국심을 고치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되는,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아버지 하마지마 다케부미의 의견에 대해 그의 아들 히데오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11)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ぶ, p.189.

히데오는 머나먼 해외에서 태어나 부모 외에는 일본인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림기도 했고 기뻐던 것이리라. 그 맑은 눈으로 뵈히 내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어, 아저씨는 일본인?”이라고 했다. “그럼 일본인이지. 히데오와 같은 일본인이야”라고 나는 히데오를 끌어당기며 “히데오는 일본인이 좋아? 일본 나라를 사랑해?”라고 물었다. 소년은 기운차게 “네, 전 일본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일본에 너무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일본 국기를 꽂고 길에서 전쟁놀이를 하는 걸요. 그리고 있잖아요. 일본 국기는 강해요. 언제나 이기기만 하는 걸요” “오, 그렇지. 그렇고말고”라고 말하고, 난 이 귀여운 소년을 머리위로 높이 올리고 대일본제국만세라고 외쳤다. 그러자 소년도 내 머리위에서 만세 만세라고 외치며 덩실거렸다.¹²⁾

8살의 히데오가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일본인인 <나>를 보고 기뻐하며 반가워하는 모습이다. 처음으로 만나는 자신과 똑 같은 국적을 가진 일본인을 보고 <뵈히> 바라보는 히데오의 모습은 8살 소년의 모습 그대로이다. 앞에서 살펴본 히데오의 아버지인 하마지마 다케부미의 국가관을 고려해 볼 때 그는 히데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 애국심,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엿볼 수 있는 대화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히데오가 일본인인 <나>를 보고 그렇게 <뵈히> 보거나 신기해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에서의 대화는 <일본 나라>였고 일본 국기를 꽂고 전쟁놀이를 한다는 히데오의 모습은 당시의 일본제국주의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며 어른들에 의해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이식되어진 아동의 모습과 겹쳐지기도 한다. 그러한 모습은 두 번째로 히데오의 교육을 담당한 사쿠라기 대령에게서도 발견된다.

1) 일본나라를 위해 군사상의 큰 발명을 하러 37명의 부하와 무인도에 와서 비밀조선소에서 해저전투정을 만들고 있다.

12)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ぶ、p.190.

전투정이 완료되어 일본해에 우뚝 서면 서구의 열국들이 나란히 들어와도 일본의 국기 아래 필력일 것이다.¹³⁾

2) 무인도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모르는데, 국제법상에서 “지구상에 새롭게 발견한 섬은 그 발견자가 속하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으로 당연히 대일본제국의 신영지가 될 것이다.¹⁴⁾

3) 아사히섬(朝日島)으로 이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서구 제국주의가 이 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메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대일본제국해군 대령 사쿠라기 시게오가 이 섬을 발견했다. 지금은 대일본제국의 점령지이다. 이곳에 상륙하는 자는 재빨리 기를 거두고 떠나라.¹⁵⁾

사쿠라기 대령은 37명의 부하들과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사라진 묘령의 인물로 알려져 화재거리가 된 인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유가 위 예문1)에서 보듯이 무인도에서 비밀리에 해저전투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들은 해저전투정을 만들어 일본을 세계의 제국주의 대열에 우뚝 서게 한다는 것에서 일종의 군사기밀과 같은 뉘앙스가 엿보인다. 군인으로서 애국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무인도에 와서 해저전투정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무인도의 점유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예문2)에서는 무인도는 발견자가 속하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고 거론하며 결국은 자신이 발견했으니 대일본제국의 신영지가 된다고 한다. 이 논리는 무인도는 결국 먼저 차지하는 자가 정복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 무인도를 제국주의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 역시 미개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배적 야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인도를 찾아 모험하며 그 무인도를 자신의 국가 영토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며 모험 속에서 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쿠라기 대령에게 히데오는 3년 동안 군인이 되는 교

13)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ぶ、p.246.

14)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ぶ、p.253.

15)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ぶ、p.254.

육을 받는다. <사쿠라기 대령의 엄숙하며 자비로운 손에 훈련을 받아 열두 살 소년치고는 신기하게도 어른과 비슷한 늙름하고 거동이 침착하고 마치 작은 사쿠라기 대령을 보는 것처럼 사내다운 소년>으로 히데오는 이미 군인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와 사쿠라기 대령이 바라는 대로 소년 히데오는 아무런 불만 없이 일본제국주의 군인의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용체이다. 아버지와 사쿠라기 대령처럼 직접적으로 히데오의 교육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히데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나, 야나기가와>가 있다. 세계를 두루 여행할 목적으로 요코하마 항을 출항한 지 벌써 6년 전의 일로 아메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명한 명소 고적을 편력해 마지막으로 이태리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가려다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표류해서 삼 년을 거기서 지낸다. <나>는 실제로 무엇 때문에 세계만유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저 탐험가라는 것만 언급되어 있었고 인물 <나>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질이 급한 인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박이 난파되었을 때 구명정에 먼저 타겠다고 앞 다투어 가던 외국인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죽었을 때 ‘자업자득’이라고 냉소를 금하지 않는 잔인함도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난파된 선박에서 <나>는 사쿠라에 부인과 히데오와 함께 바닷물에 뛰어 들었지만 히데오와 둘만 살아남고 부인의 생사는 알 수 없었다. 무인도에 도착해 히데오가 꿈을 꾸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한없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나>는 인정적인 면도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혈질 적인 <나>는 자신의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만은 변함없는 <충>으로 일관되어 있다. <나>와 히데오가 아사히 섬에 도착해 사쿠라기 대령을 도와 생활하던 중, 히데오와 함께 고릴라 사냥을 나간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죽음의 계곡이라는 모래 계곡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사쿠라기 대령에게 구원요청을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해저전투정의 성패를 짊어지고 있는 대령님의 목숨은 우리들과 비교해서 몇 십 배 일본제국을 위해 아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령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몸보다도 먼저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를 구할 좋은 방안이 없다면, 부디 대의를 위해 우리를 버리십시오. 우리들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뼈를 산중에 묻겠습니다>¹⁶⁾라고 한다. 여기서 <나>는 도움을 요청하긴 하지만 <일본제국> <일본신민>을 거론하며 자신과 히데오의 목숨보다 <대의> <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당부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나>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충>은 히데오에게 그대로 흘러갔을 것이다. 히데오를 둘러싼 이러한 교육양육자들의 모습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양육에 관여해야 할 어머니의 부재이다. 어머니와의 히데오의 관계는 모자지간이라기 보다는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제도¹⁷⁾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무의지적인 인물이다. 철저한 일본제국주의자인 세 사람에게 의해 히데오는 국가관을 수용하고 일본제국의 해군 군인이 되어 간다. 이러한 히데오의 모습은 메이지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소년상이다. 1872년 학제, 1886년 소학교령으로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1890년에 메이지천황의 명으로 발표된 <교육에 관한 칙어>는 일본 제국 신민들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하게 되는 일련의 제도가 있었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는 교육칙어의 제정과정에서 전통적인 봉건체제의 <효충>을 <충효>라고 하는 유교덕목으로 바꾸어 <집> 제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과 국가주의와 가족주의가 연합해서 개인주의와 대결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며 <가부장제>에 대해 여성의 권한이 축소된 것을 지적¹⁸⁾한다. 이러한 지적으로 볼 때 히데오의 어머니인 하루에 부인은 아들의 교육에 관여할 수 없는 제도 속의 여인일 수밖에 없고 히데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16)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ぶ、p.270.

17) 우에노 치즈코는 실제로 가부장제의 가족제도는 메이지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근대이전의 모계상속이나 딸자상속이 존재하였는데 근대국민국가에 적합하게 형성된 제도가 가부장적인 <집>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p.70) 메이지민법에 보이는 가부장적집 제도는 봉건사회의 가족질서를 규정한 것(p.100)이라고 지적한다. 上野千鶴子(1994) 『近代家族の成立と終焉』岩波書店、p.70、p.100.

18) 上野千鶴子(1994) 『近代家族の成立と終焉』岩波書店、p.74.

3. 《해저군함 시리즈》 - <백색인종>과 <무인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철저한 일본제국주의를 순응한 『해저군함』은 뒤이어 『영웅 무협외전 일본』 『해국모험기담 신조군함』 『전시영웅소설 무협합대』 『영웅소설 신일본도』 『영웅소설 동양무협단』 등의 작품들로 《해저군함 시리즈》이다. 그런데 이 《해저군함 시리즈》에는 『해저군함』에서 저류하던 <애국> <일본제국주의>가 노골적으로 부각되며 공공연히 <일본제국주의>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다.¹⁹⁾ 그 욕망에 대한 고찰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의 적, 두 번째는 백색인종, 셋째는 무인도이다.

《해저군함 시리즈》의 기본구조는 이분법적이다. 일본중심주의 관점으로 일본을 중심에 두고 일본에 적의를 품는 모든 상대는 적국이 된다. 그런 적국 중 일본의 첫 번째 가상의 적과 적국은 러시아이며 러일 전쟁 승리 이후의 상대는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제국주의인 <백색인종>이다.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해저군함 시리즈》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대립하게 되는 계기는 『해저군함』에서 만들어진 해저군함과 히노데²⁰⁾는 싱가포르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의 해군함장들이 주시한다.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유독 러시아는 해저군함과 히노데를 보며 시샘하며 묘한 기류를 만들어 낸다. 해저군함과 히노데가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에 히노데는 앞머리를 맞아 산산조각이 났고 해저군함정은 지나만 부근에서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지나만 부근은 십 몇 년 전에 제국의 신조군함 <우네비가타(畝傍)>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지역이기도 하다. 일본이 자랑하던 그 두 군함이 공교롭게도 <원한 10년>

19) 이토 히데오는 <그 당시는 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 일본은 부국강병이라는 군인정신일색이었고 러일전쟁을 목전에 둔 시기로서 이러한 순로의 자유분방한 작품이 환영을 받았던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말기인 쇼와 19년에 석서방(石書房)에서 순로전집의 하나로 초출했는데 1만 부나 팔렸으니 전의양양이 애국소설로서 다시 한 번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伊藤秀雄(2002) 『明治の探偵小説』 双葉社, pp.362-363.

20) 히노데(日の出)군함은 히데오의 아버지가 아들인 히데오(日出雄)이 죽은 줄 알고 아들을 기리기 위해 그의 개인적 기부로 군함을 만들었고 군함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히노데라고 지었다.

인 지나(支那)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우연이지만 당연히 <러시아의 소행>으로 이끄는 복선의 장치가 있다. 위에서 말한 <원한 10년>은 청일전쟁 후 일본이 획득한 요동반도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된 삼국간섭으로 인해 힘의 열세에 있던 당시의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돌려주어야만 했던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감정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말들이다. 히노데와 해저군함이 싱가포르에 정박했을 때 구미 제국함대의 함장들이 방문했을 때 러시아의 동방침략함대 함장인 울프코프 해군중장도 있었다. 다른 함장들과는 달리 이 울프코프 중장에 대해서만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다. 울프코프 중장은 <보통사람이 아니>며 <후일 동양에 큰 파란이 일어난다면 그 도화선은 반드시 울프코프 중장>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만큼 위압감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런 만큼 사쿠라기 대령 또한 울프코프 중장의 일거수일투족 그 표정까지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주시했다. 긴장이 팽배한 가운데 이 두 군함의 출발 일을 묻는 울프코프 해군중장의 <눈이 빛났다>고 덧붙이며 이미 두 군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암시해 준다. 실제로 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 두 군함이 지나만 부근을 지날 때 히노데는 침몰되고 해저군함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과의 연관성이 울프코프 해군중장의 <눈>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다. 울프코프 해군중장이 가고 난 다음에 불길한 기류가 흐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일본건국의 정신>을 피력하고 있다.

러시아만큼 일본에 적의를 품은 나라는 없습니다. 또 일본만큼 러시아를 미워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정책은 항상 침략적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건국 정신에 따라서 늘 무협을 혼으로 생각하며 활동하며 지금 같은 이 지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앞으로 생길 많은 동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일본이 온힘을 다해 러시아의 병합 욕망을 견제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대충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인종 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요동반도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방해한 옛날의 원한이 있었던 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건국의 정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 일본의 건국정신은 무협입니다. 무협은 자유,

독립 인종의 억압자들에게 끝까지 대항하는 정신입니다. (중략) 후일 동아시아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제국이 유유자작한 건국의 정신을 따라 무협의 깃발을 날리며 의를 행하고 나를 잊고 일본고유무사의 혼을 발휘하는 유쾌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²¹⁾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이다. 이미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러시아 때문이지 결코 일본의 건국이념을 지키고 있는 일본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러시아가 <히노데>를 침몰시켜 전운이 감돈다는 전쟁의 발발 정당화까지 미리 내세우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자유 독립 인권의 압제자를 향해서 끝까지 대항하는> 정신인 <무협>은 일본건국정신이며, 이러한 무협정신을 실현하는 자들이 바로 해저 군함을 만든 사쿠라기 대령과 그의 부하들이다. 그들은 후에 <무협 단체>가 된다. <무협>의 논리에서 보자면 당연히 일본건국정신을 가진 일본이 정의이고 그 가상의 적국인 러시아는 불의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물리쳐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일색이다. 그러면서 한 러시아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하게 한다. 러일전쟁 중 기선 노르만디호를 탄 러시아인은 다른 구미 제국 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승전을 축하하며 마에바라 소위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자 마에바라 소위가 적군과 아군이 악수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자 러시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러시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러시아인의 감정을 버리고 일본의 대승리를 축하드리니 부디 편히 생각하십시오. (중략) 러시아의 오늘은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본국에 있었을 때 러시아의 죄악을 까발리려 몰래 외국 신문에 투서한 일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내정은 어지럽고 인민은 모두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해상과 육군이 계속 패전하고 있으니 국내에는 여러

21) 押川春浪(1943) 『武俠の日本』 石書房、p.48.

곳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략) 나는 원래 개인주의 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으니 당연히 병역을 피해 동양으로 여행하고자 이 배를 탄 것입니다.²²⁾

러시아인의 입을 통해 러시아를 비판한 말을 들은 마에바라 소위는,

정말 천벌을 받을 소리다. 지금 한 이야기는 우리 일본인이 러시아인을 보고 해야 할 소리이지 러시아인인 그대가 입을 담은 소리는 아니다. 러시아의 한 남자로서 본국의 패배에 크게 슬퍼하고 분노해야 되지 않는가. 손톱만큼의 인간다운 근성이라도 있다면 강렬한 적개심으로 우리 일본인을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라. 아녀자도 부끄러워해야 할 태도로 우리에게 아부하고 러시아에 태어나 러시아 밥을 먹고 자란 그대가 오히려 자국을 욕하고 저주하다니, 비열한- 비인간- 매국노이다.²³⁾

라고 분노한다. 위의 러시아인과 마에바라 소위의 생각은 당시의 시대상과 부합된다. 이미 전제정치가 흔들리면서 사회주의가 대두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사회주의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면서 일본제국주의의 반기를 들며 러일전쟁을 반대하고 나선 일련의 시대상을 비난하는 목소리이다. 또한 국가가 아닌 <개인>을 우선시 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며 결국은 <매국노>라는 논법이 철저한 제국주의의 군인정신일 것이다. 오로지 국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마에바라 소위의 말은 러일전쟁, 즉 처음으로 서구와 대립 전쟁인 동양의 섬나라인 일본인에게는 그러한 군인정신을 강하게 어필해야만 했을 것이다. 러시아라는 자국에 자조적인 자세를 취한 러시아인을 통해 비판과 비난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일본과 일본인에게 애국심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일본에서의 개인주의들²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22)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ぷ、P.328.

23) 押川春浪(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巻』ほるぷ、P.329.

24)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주의 경향을 싫어했던 오시카와 순로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는 연합해서 개인주의와 대결>하는데 러시아인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 결국 일본의 국가주의는 더 더욱 강하게 단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했을 것이다.

러시아와 전쟁해야 할 또 다른 대의명분이 있다. 그건 황색인종 대 백색인종에 관한 이분법이다. <배금종의 병독이 뿌리깊이 박혀 부패하고 타락한 구미 여러 나라는 인도를 무시하고 모략하고 침략하는 욕망을 품은 나라인데 이들은 <예수교> 나라이며 <우등인종>이라 생각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황색인종의 자유 독립 인권 및 영토를 빼으려고 한다. 황색인종을 유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황색인종도 각오를 해야 한다. 지나, 조선, 안남, 필리핀이 있지만 지나, 조선은 빈약하지만 서로 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백색인종 대 황색인종의 전쟁. 미국은 교묘하게 한 군마부대와 수척의 군함을 보내어 친히 필리핀 도민을 스페인 정부 압제에서 구하고 그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아귀날도 장군²⁵⁾을 내세워 미국찬미를 하게 만들더니 곧바로 미국이 사기 치듯 그 영토를 빼앗았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그러한 사기를 방지>해야 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사쿠라기 대령은 선박 <히노데>를 지키지 못해 자살하려는 마쓰시마 대령에게 <대의를 위해(大義のため)> 자살을 그만두고 <러시아에 대한 원한 10년>의 <복수(復讐)>의 칼을 갈자고 한다. 실제로 가상의 적국을 만들고 있지만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난 이상 더 이상의 가상의 적국이 러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대립구도로 일본의 황색인종 대 러시아를 포함한 구미제국주의 백색인종이 등장한다. 거기에는 이미 죽은 노영웅(老英雄)의 부활이 있다. 이 노영웅은 필리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아귀날도 장군을 음지에서 사상적으로 도와주는 일본 근대의 영웅 사이고 다카모리이다. 《해저군함 시리즈》의 무협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노영웅과 필리핀의 아귀날도 장군의 등

25) 에밀리오 아귀날도(1869-1964)는 스페인 정권 하의 필리핀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20대에 필리핀혁명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필리핀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장²⁶⁾은 바로 백색인종과의 대립구도에 필요한 것이다. 아귀날도장군은 남양의 기걸(奇傑)로 등장하여 스페인과 싸워 340여 년의 식민시대를 끝내며 독립을 한다. 필리핀이 독립하도록 음지에서 도와준 노영웅과 그리고 미국, 그런데 필리핀이 독립하자마자 미국은 다시 필리핀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백색인종의 <사기>가 이어져 이에 대해 일본제국주의가 나서야 한다는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그건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야욕의 정당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인도 <아사히섬> <해광국> <거인도>의 존재인데 이 세 곳 모두 무인도 이거나 문맹국가로 모두 일본인들이 개척하여 미개하고 문맹이었던 지역을 무협단체를 통해 문명국으로 재건설한다²⁷⁾는 것이다. 일본을 위해 함선을 건조하고 일본을 위해 나설 때를 기다리며 그들이 만든 무인도의 영토는 일본제국주의의 것이다. 아사히 섬은 사쿠라기 해군대령이 그의 부하들 37명과 함께 비밀리에 해군전투정을 만들기 위해 찾아 낸 무인도는 결국 아사히 섬이라 명명되며 일본제국영토가 되었다. 군함우 네비가 타가 프랑스에서 회항 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아리 아키라 해군대령이 인솔한 우네비가타는 보르네오해의 거인도에 표착하여 거기서 발견한 커다란 성곽과 보물은 거인도를 근거지로 일본제국을 배후에서 지지할 것을 결의하며 동양단결이란 조직을 만든다. 여기서도 거인도는 일본의 근거지가 된다. 고스섬에 표착한 기걸이나무라 겐타로와 그 일족도 이 동양단결의 일원이 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아프리카 동해의 비르하라국에 들어가 대통령이 되고 국명을 해광국으로 바꾼다. 이 해광국을 만든 이유도 일본제국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마쓰모토 산노스케松本三之介는 메이지정신을 <국가주의> <진취정신> <무협적 정신>²⁸⁾이라고 하는데 《해저군함 시리즈》에도 마쓰모토가 지적하는 세 정신이 저류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직 일본중심으로 회전되는 일본중심주의에

26) 土屋忍(2008) 「エミリオ・アギナルドの表象－山田美妙と押川春浪－」『武蔵野大学文学部紀要』(9)、武蔵野大学文学部、pp.43-54.

27) 山田有策(1980) 「押川春浪－「海底軍艦」シリーズ－」『国文学解釈と鑑賞十月号』至文堂、pp.139-142.

28) 松本三之介(1993) 『明治精神の構造』岩波書店、p.14.

근간을 두고 국가주의 속에 교묘히 무협을 내세우며 포장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큰 위험성은 《해저군함 시리즈》의 독자층이 대부분 청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해저군함 시리즈》에 저류하고 있는 국가주의가 자연스럽게 독자의 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수용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공교육에서 행한 당시의 시대적 요청인 <애국> <제국>을 교육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교과서>²⁹⁾가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청소년독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해저군함 시리즈》의 독자 중에 다이쇼기의 대표 작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있었고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4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오시카와적>과 <방관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오시카와 순로의 관계는 우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초기문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초기문장>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청소년 시기에 쓴 문장을 일컫는 말이다. 이 초기문장을 분류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오시카와적>인 문장, 두 번째는 역사에 관한 문장, 세 번째는 기행적인 것이다. 첫 번째의 <오시카와적>이란 것은 오시카와 순로의 《해저군함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문장과 오시카와 순로의 탐험소설을 모방한 문장³⁰⁾이다. 그 중에 첫 번째의 <오시카와적>이라는 문장을 연상하는 것은 『노구치신조군에게』 『신짱에게』 『대해적』 『불가사의』 『신 콜럼버스』 『20년 후의 전쟁』 『절도의 괴사』 등으로 제목에서부터 모험과 탐험 또는 전쟁을 연상케 하는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의 대부분은 오시카와 순로의 《해저군함 시리즈》를 모방했다고 보여 지는 문장들이며 그 중에 『절도의 괴사』는 등장인물과 지명 정도만 변경이 되어 있을 뿐 오시카와

29) 藤田浩暁(2000) 「もうひとつの<日本>-<教科書>としての『海底軍艦』-」『明治期雑誌メディアにみる<文学>』、筑波大学近代文学研究会、pp.91-106.

30) 横田順弥(1999) 「明治時代は謎だらけ!! 芥川春浪(?)」『日本古書通信』日本古書通信社、p.22.

순로의 『절도통신』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³¹⁾다. 이들 문장에 자주 보이는 <애국> <전쟁> <국가> <매국노> <충성> 등의 용어에서 당시의 어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지대한 관심사는 역시 당시의 시대적 관심사인 전쟁과 국가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오시카와적>인 문장의 대부분의 주제는 언급했듯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노구치신조군에게』에선 프랑스와의 전쟁을 상징해 <밀담> <매국노>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고 뒤이어 이어지는 『신짱에게』라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앞의 두 초기문장의 전쟁내용과는 다른 탐험내용으로 이어지는 『대해적』과 『불가사의』는 해적선과 충돌하는 모험탐험에 관한 문장인데 그러한 경향을 엿 볼 수 있다.

세계무비의 대영웅이라고 세상에 올려 퍼지게 할 자 누군가. 바로 다카나미 해군대위의 아들 다카나미 히데쿠니(高浪日出 国). 이제 15살의 청년이지만 힘이 세고 검술에 능하고 호학하고 지식이 넘치는 미장부이다. 아버지가 전사한 후에 항해 사업을 하었는데 이번에 한 사람의 주선으로 상선(商船) 아키쓰시마(秋津島)호에 타고 이탈리아로 항해하던 중 귀로일선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배는 어떤 나라의 배이던가. 그 국기에는 황색에 검은 악마 표시로 물들여져 있구나. 전쟁 후 인도양으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한 척의 배가 이쪽으로 다가오더니 돌연히 쏘기 시작하는 탄환이 한 발 두 발 또 한 발... 탄환이 비수처럼 수중을 뚫자 물보라가 떠오른다. 아군 배를 관통한다. 이때 재빨리 때를 독촉하듯 아키쓰시마호에서 한 척의 보트가 내려오더니 파도를 일며 상대방의 배가 해적선인지 어떤지를 살펴보러 다가가자 그 배는 거품을 내며 수중으로 침몰해 버린다. 이 보트에 타고 있는 자 그 누구던가. 승조원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일본인... 누구던가. 바로 다카나미 히데쿠니다. 후에 어떤 미국인이 말하기를 그 가라앉은 배가 바로 인도양의 대해적이었다고. 이 일이 각국에 퍼졌다. 히데쿠니의 이름은 지

31) 曹慶淑(2005) 『日露戦争と芥川龍之介の政治意識-「少年世界」を中心として-』 『声・映像・ジャーナリズム—メディアの中の戦争と文学』 フェリス女学院大学、pp.152-168.

구상에 올려 퍼졌다. 이 일은 히데쿠니 아니 승조원, 아니 아키 쓰시마호 아니 우리 대일본제국의 명예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³²⁾

이 초기문장은 나라 간의 전쟁은 아니지만 탐험을 하다 만난 대해적과의 한 판 대결에서 승리한 <히데쿠니(日出國)>라는 소년을 통해 <대일본제국의 명예>를 도출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보이는 이 히데쿠니라든 소년의 이름에서 오시카와 순로의 <히데오(日出雄)>를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신 콜롬부스』에서는 탐험을 하는 여섯 명의 소년이 탐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유토멜이라는 미국소년이 북태평양 횡단을 거행한다는 것에 촉발되어서 자신들도 항해를 하게 된다는 초기문장이다. 여기서도 항해하기 전 다짐을 하기 위해 6명의 소년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자>는 군가를 합창하는 반복적인 모습에서 폐기에 찬 군인의 모습이 연상된다. 그리고 프랑스가 가상의 적으로 등장하는 『20년 후의 전쟁』에서도 여전히 <복수> <적> <매국노> <프랑스 스파이>를 죽이고 국가를 위해서 죽는 <애국자>의 모습이 칭송받는다는 문장들로 일색이다. 그리고 오시카와 순로의 『절도통신』을 그대로 답습한 『절도의 괴사』에서는 <굴욕적인 강화를 논하고 동아의 풍운을 설>하는 이학사들의 모습에서는 아버지와 사쿠라기 대령에게 군인교육을 받은 <히데오>의 모습과 탐험가 야나기사와 류타로인 <나>의 모습이 겹친다. 이러한 <오시카와적> 초기문장은 자신의 의식세계의 테두리에서 일어난 무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오시카와 순로의 《해저군함 시리즈》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또한 오시카와 순로의 지대한 영향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에서 보이는 오시카와 순로에 대한 경도가 초기문장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 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다이쇼기의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에 대해서 그와 그 작품을 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초현실주의자이며 기교주의 작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생전 10여 년의 짧은 집필 기간

32) 芥川龍之介(1997) 『芥川龍之介全集 第二十一卷』 岩波書店、pp.10-11.

동안 수많은 단편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오시카와 순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작품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1918) 『군함금강항해기(軍艦金剛航海記)』(1917) 『모리선생(毛利先生)』(1919) 『애독서의 인상(愛讀書的印象)』(1920) 『강남유기(江南遊記)』(1922) 등이다. 실제로 『사이고 다카모리』와 『군함금강 항해기』는 간접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리선생』 『애독서의 인상』 『강남유기』에서는 언급만 되어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그 이전 시대의 제국주의의 내셔널리즘을 그대로 수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도 희석되어 있었다. 다이쇼 교양주의와 문화주의의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전시대의 군국주의의 내셔널리즘을 그대로 모방한 오시카와 순로의 <오시카와적>이란 걸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수용하지도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방관자>적인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역사도인 <나>가 우연히 세이난 전쟁을 조사하는 역사학자인 혼마상과 기차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역사의 진위에 대한 역사의식을 엿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사학자 혼마는 사이고 다카모리는 세이난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가설을 내세운 걸로 유명한 학자이다. 그가 <나>에게 사이고 다카모리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진위의 판단은 듣는 자의 자유입니다>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살아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역사도인 <나> 또한 <거짓이 없는 역사를 쓰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쓰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며 회의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여기서 《해저군함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사이고 다카모리에서 힌트를 얻은 거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데 사이고 다카모리에 관한 전설은 사이고 다카모리 사후 직후부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오시카와적>인 것에서 추론해 본다면 실제로 『사이고 다카모리』에서 일말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이 근대국가로 이행하면서 최고의 개국공신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본근대의 마지막 내전인

세이난 전쟁에서 자결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정부수립의 영웅이 그 정권의 권력자들에 의해 말살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일본민중들이 품은 영웅에 대한 애석함이 결국 불사재기라는 전설, 러시아로 갔다든가 또는 한국으로 건너갔다는 등의 전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심리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³³⁾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물론 《해저군함 시리즈》의 혁명가인 사이고 다카모리와는 완전히 다른 일반인적인 인물로 등장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전무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한 작품은 과거로의 회상이 있는데 군함금강을 타고 항해하며 기록해 놓은 『군함금강 항해기』³⁴⁾이다. <나>가 기관장과 같이 보일러실을 구경하며 거기서 <굉장한 노동>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노동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해상에서의 생활은 육지에서의 생활과 다름없이 괴롭다>라는 생활인의 모습을 한 군인들을 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항해기이다. <야마모토대령>은 술에 취해 <나>에게 <20년 전의 일본과 오늘날의 일본은 상당히 다릅니다>고 말하는데 <난> <솔직히 말하자면 난 20년 전의 일본과 오늘날의 일본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야마모토 대령>이 말한 <20년 전>은 항해기가 기록된 1917년의 당사에서 되돌아본다면 청일 러일전쟁을 전후 한 시점이 될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20년 전이라는 것은 일본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내셔널리즘이 전 일본에 팽배해 있었던 시기이며 해군들의 위상 또한 최고조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교양주의 문화주의 속에서 내셔널리즘과 군인은 지난 시대의 회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야마모토 대령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탄지정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회상은 『모리선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리선생』은 <나>가 10여 년 전에 중학생이었을 때 임시로 영어를 담당한 <모리선생>을 회상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모리선생은 인플렌자로 갑자기 돌아가신 영어선생 대신 후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교사로 <나>가 다니는 중

33) 佐々木克(1994) 『西郷隆盛と西郷伝説』『岩波講座 日本通史第16巻』 岩波書店、pp.325-340.

34) 야쿠타가와 류노스케는 1916년 12월에서 1919년 3월까지 2년 4개월간 해군 기관학교에서 영어측탁교수로 근무했다.

학교로 왔다. 취임당일부터 모리선생의 복장과 실력으로 우리들은 모리선생에 대해 비호감적이었다. 심지어는 같은 영어를 담당하는 단바(丹波)선생도 학생들과 같이 공공연히 모리선생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모리선생의 수업에 학생들 그 누구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노골적으로 영어책 초이스리더 밑에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을 두고 읽는 학생도 있었다. 모리선생에 대한 거부로 한 유도 선수가 수업 대신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을 읽고 있다. 이 시기 또한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로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은 『애독서의 인상』이다. <어릴 때 읽었던 애독서는 「서유기」가 첫 번째이다. 「서유기」는 오늘날에도 내가 제일 애독하는 책이다. 비유담으로 이 정도의 걸작은 서양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유명한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도 도저히 이 「서유기」에 대적할 바 못된다. 그리고 「수호전」도 애독서 중의 하나이다. 이도 지금까지도 애독하고 있다. 한때는 「수호전」 속에서 108인의 호걸 이름을 전부 외운 적이 있다. 그 때에도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이나 다른 것보다도 이 「수호전」이나 「서유기」가 훨씬 재미있었다>³⁵⁾고 한다. 여기서 어릴 적 애독서인 <서유기>나 <수호전>은 집필하는 당시에 읽었지만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소설은 어떤지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여기서는 어릴 적 애독서에 <서유기>나 <수호전>에 대해 훨씬 더 무게를 두고 거론하고 있지만 그의 초기문장에서는 오시카와 순로의 《해저군함 시리즈》를 모방한 문장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보면 당시에는 오시카와 순로의 영향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³⁶⁾ 이렇게 본다면 <오시카와적>인 것에 열광하며 다 수의

35) 芥川龍之介(1996) 『芥川龍之介全集 第六卷』 岩波書店、p.299.

36) 조경숙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제3차 『신사조(新思潮)』의 동인이었을 때 『봄의 심장(春の心臓)』(1916,6)를 번역했다. 그때 그의 펜네임을 <오시카와 류노스케(押川隆之介)>로 했으며 호는 <야나기가와 류노스케(柳川隆之介)>로 했다. 이 두 필명 <오시카와 류노스케>는 오시카와 순로를 <야나기가와 류노스케>는 《해저군함시리즈》의 주인공인 야나기가와 류타로(柳川龍太郎)의 이름을 연상케 한다. 이때까지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오시카와적>인 것에 대해 여전히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경숙(200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오시카와 순로(押川春浪)-「충군애국」을 축으로 해서-」 『일어일문학연구』58-2, 한국일어일문학회, pp.163-176.

초기문장을 남겼던 것에서 작가가 된 이후의 작품이나 기록들을 보면 거의 <방관자>적인 작품소재로는 다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뇌리에 잔존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5. 나가며

오시카와 순로의 《해저군함 시리즈》는 모험과 SF적인 요소를 겸한 모험소설로 당시의 주된 독자인 청소년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아동문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저류하고 있는 국권주의자적 군국주의자적 일본제국주의자적인 성향으로 순수한 아동문학의 연구적 접근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그렇지만 1900년 전후의 당시 오시카와 순로의 모험탐험소설은 시대조류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군국적 봉건적 제국주의를 그의 작품에서 노골적으로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수용해 배출하고 있다. 야마다 유사쿠(山田有策)는 <국가의 팽창을 교묘히 낭만적 작품으로 미화시킨 시리즈>³⁷⁾라고 평하고, 후쿠다 히로코(福田宏子)는 <예기하지 않았던 돌발적사건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나 계속되는 고난, 구사일생하여 적지에서 탈출하여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흡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적과 싸우면서 곤란을 타파해 가는 상태를 새로운 병기를 만들고 사용하여 종횡무진 활약하여 열렬한 애국심과 분방하고 자유로운 공상을 유감없이 표현>³⁸⁾했다고 《해저군함 시리즈》의 소설로서의 이의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해저군함정을 만들고 무인도를 발견하여 새롭게 개척하는 등의 모험은 충분히 낭만적이고 공상을 자극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군국주의는 이토 히데오(伊藤秀雄)의 <일청전쟁에 승리한 이래 우리나라는

37) 山田有策(1980) 「押川春浪-「海底軍艦」シリーズ-」『国文学解釈と鑑賞十月号』、至文堂、p.142.

38) 福田宏子(1968) 「明治の帝国主義と冒険小説-押川春浪の小説の意義-」『季干文学・語学』(49)、三省堂、p.86.

부국강병이라는 군인정신 일색이었고 일러전쟁을 목전에 둔 시기로서는 이러한 순로의 자유분방한 작품이 환영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과 이러한 애국소설이 태평양전쟁 말기에 다시 한 번 오시카와 순로의 작품이 인기를 얻었다³⁹⁾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해저군함 시리즈》가 당시의 청소년독자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박 훈(2005) 「근대일본의 ‘어린이’관의 형성」 『동아연구』49,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p.135-161.
- 윤상인(2000) 「메이지 시대 일본의 해양 모험소설의 수용과 변용 - <야만적 타자>의 발견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비교문학』25, 한국비교문학회, pp.261-282.
- 조경숙(2006) 「아쿠타가와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오시카와순로(押川春浪) - 「충군애국」을 축으로 해서 -」 『일어일문학연구』58-2, 한국일어일문학회, pp.163-176.
- _____ (2008) 「아쿠타가와류노스케와 러일전쟁」 『일어일문학연구』67-2, 한국일어일문학회, pp.324-325.

<국외자료>

- 芥川龍之介(1996) 『芥川龍之介全集 第六卷』 岩波書店, pp.299-300.
- _____ (1997) 『芥川龍之介全集 第八卷』 岩波書店, pp.213-299.
- _____ (1997) 『芥川龍之介全集 第二十一卷』 岩波書店, pp.4-60.
- 伊藤秀雄(1994) 『近代の探偵小説』 三一書房, pp.178-194.
- _____ (2002) 『明治の探偵小説』 双葉社, pp.233-384.
- 上野千鶴子(1994) 『近代家族の成立と終焉』 岩波書店, pp.1-145.
- 押川春浪(1943) 『武俠の日本』 石書房, pp.1-316.
- _____ (1978) 『日本児童文学大系 第三卷』 ほるぶ, pp.189-329.
- 佐々木克(1994) 「西郷隆盛と西郷伝説」 『岩波講座 日本通史第16巻』 岩波書店, pp.325-340.
- 土屋忍(2008) 「エミリオ・アギナルドの表象 - 山田美妙と押川春浪 -」 『武蔵野大学文学部紀要』(9), 武蔵野大学文学部, pp.43-54.
- 中島 河太郎(1976) 「富国強兵の国是のもとで - 押川春浪「海底軍艦」(少年文学 - ユートピアと冒険譚<特集>)」 『現代詩手帖』, 思潮社, pp.100-105.
- 福田宏子(1968) 「明治の帝国主義と冒険小説 - 押川春浪の小説の意義 -」 『季干文学

39) 伊藤秀雄(2002) 『明治の探偵小説』 双葉社, pp.365-366.

- ・語学』(49)、三省堂、pp.80-90.
- 藤田浩暁(2000)「もうひとつの<日本>-<教科書>としての『海底軍艦』-」『明治期雑誌メディアにみる<文学>』筑波大学近代文学研究会、pp.91-107.
- 松本三之介(1993)『明治精神の構造』岩波書店、pp.1-73.
- 山田有策(1980)「押川春浪-『海底軍艦』シリーズ-」『国文学解釈と鑑賞十月号』至文堂、pp.139-143.
- 横田順弥(1999)「明治時代は謎だらけ!!芥川春浪(?)」『日本古書通信』日本古書通信社、pp.22-23.
- _____ (2005)「近代日本奇想小説史-または、失われたナンジャモンジャをもとめて(33) 押川春浪の登場」『SFマガジン』早川書房、pp.193-201.
- _____ (2005)「近代日本奇想小説史-または、失われたナンジャモンジャをもとめて(34) 押川春浪と周辺事情」『SFマガジン』早川書房、pp.193-200.
- _____ (2007)「近代日本奇想小説史-または、失われたナンジャモンジャをもとめて(第64回)押川春浪と冒険実記」『SFマガジン』早川書房、pp.193-201.
- 曹慶淑(2005)「日露戦争と芥川龍之介の政治意識-「少年世界」を中心として-」『声・映像・ジャーナリズム-メディアの中の戦争と文学』フェリス女学院大学、pp.152-168.

성명(한글) : 조 경 숙

(한자) : 曹 慶 淑

(영문) : Cho, Kyong-Sook

논문영어제목 : Adventure and Empire : A Study on Osikawa Shunro
and Akutagawa Ryunosuke

소속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의 교수

주소(자택) :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더샵2차 206-303

Tel : 053-211-8179

휴대폰 : 010-9706-6077

E-mail : cks417@hanmail.net

투 고 일 : 2014년 9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0월 6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28일